

시키보의 “치코리노”- 마혼방으로 품종확충

시키보는 2004년 춘하절부터 면과 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 장섬유 복합소재 “치코리노”의 품종을 확충하고 있다.

“치코리노”는 2003년도 춘하절 판매량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배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 실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호황을 보였다. 특히 도쿄지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부인층 중심에서 직업여성으로까지 수요층이 넓어져 크게 판매량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춘하절부터 상품내용을 확충하고자 마(麻)를 혼방함으로써 약간 캐주얼한 태의 “치코리노 마(麻)”를 일부 판매하기 시작하고, 2005년 춘하절부터는 “소아론”을 단섬유로 커팅하여 혼방한 “치코리노 스펀”도 신상품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치코리노”는 미쓰비시 레이온의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 “소아론”을 심부(芯部)로 하고 면으로 감싸준 2층 구조사이며, 이 복합사로 면 60%, 소아론 40%의 편포를 짜고 있다.

실의 종류는 30수 단사, 40수 단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50수 단사도 있다. 시키보는 편포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웨터(sweater)로도 문의가 있으며, 횡편(橫編)용 매사(賣絲)도 검토하고 있다. ♣